

2023. 7. 10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
(반지하 특정바우처)

주택정책과
(반지하 매입)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주거안심지원반장	이민경	2133-9573
주거안심계획팀장	우성탁	2133-9580
주택정책과장	공병엽	2133-7010
주택정책팀장	홍성수	2133-7012

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·보증금 대출 '중복지원' 가능해진다

- 서울시-국토부 협력, 특정바우처·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- 중복지원으로 월세 약 40만원 수준 지원받게 돼... 바우처·보증금 상시 접수 중
- 당초 다세대·연립 반지하 '절반 이상' 매입→반지하 세대 '단독 매입' 가능해져
- 시 "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 부담 덜어주게 돼... 국토부와 지속 협력"

-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.
-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, ▲반지하 특정바우처(월 20만원, 서울시 지원)와 ▲보증금 무이자 대출(최대 5천만원, 국토부 지원)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. 또 다세대·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'단독 매입'도 할 수 있게 됐다.
-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'반지하 특정바우처' 또는 '버팀목 전세자금 대출' 단

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.

-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'반지하 특정바우처'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,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*이며,

*지원 제외 대상: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, 자가 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·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, '22.8.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
- 국토부 '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'은 재해우려 반지하·쪽방·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천만원,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.

-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·월세 전환율 약 4.5%(서울 시내 연립·다세대 기준) 가정 시,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.

-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, 5개 시중은행(우리·국민·NH농협·신한·하나은행)을 통해 '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'을 신청하면 되고,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'반지하 특정바우처'를 신청할 수 있다.

- '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'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(☎02-2135-5690)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.

서울주거포털(특정바우처) housing.seoul.go.kr 주택도시기금(전세자금 대출) www.nhuf.molit.go.kr

- 다음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'단독 매입'도 가능해졌다.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"며 "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